

〈조씨삼대록〉의 조자염과 소경수 부부 형상화 연구*

- 군자다운 딸과 효성스런 아들의 만남

정선희**

〈차 례〉

1. 머리말
2. 조자염 - 군자다운 딸이자 고난을 감내하는 아내
3. 소경수 - 완벽한 아들이자 효성스럽고 우애로운 남편
4. 인물 형상화의 의미와 서사적 효과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현몽쌍룡기〉의 후편인 〈조씨삼대록〉의 주동가문 조씨의 딸 조자염과 그녀의 남편 소경부 부부에 대해 고찰하였다. 자염은 모든 면에서 뛰어난 군자다운 여성으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과 인정을 받은 딸이다. 경수도 능력과 성품, 외모 등을 두루 갖춘 완벽한 남성으로, 효성스럽고 우애로운 인물이다.

자염은 초공 조성의 장녀이며 양 부인의 소생인데, 얼굴의 광채와 정기가 어머니보다도 뛰어나고 성품이 아버지와 짝할 만하여, 정숙하고 요조한 기질이 초공과 진왕의 지손들 중 으뜸이라고 평가되었다. 그런 그녀를 엿보고 상사병이 난 경수와 혼인을 하지만, 경수의 양모(養母)인 구부인과 다른 아내 구씨와 이씨, 여동생들의 모해로 심한 고통을 당한다. 경수도 14세에 장원급제할 만큼 뛰어나지만 숙부 소학사의 양아들로 들어가 계후가 되고 양모가 아들 연수를 낳자 질투와 모해를 받게 된다. 자염과의 혼인생활도 행복할 수 없었다. 어머니나 다른 아내들이 자염을 박대하고 모해해도 어찌할 수 없었으며, 동생이 자신을 모해해도 참아내려 하였다. 그러

* 이 논문은 2024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나 그의 효성과 우애를 이해하고 공감한 아내와 함께 참아내어 끝내는 어머니와 동생을 계도하여 행복한 결말을 맺었다.

자염처럼 모든 면에서 뛰어나면서도 ‘거룩한 사람’, ‘요순임금 같은 사람’ 등의 칭찬을 받는 여성인물은 흔하지 않다.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 정도가 있을 뿐이고 대개는 어머니와의 친밀도가 강조되는 것에 반해, 자염은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경우라는 점이 특별하다. 경수는 작품 속 사위들 중 최고라고 평가되는 인물이며, 그의 수많은 어진 행적이 묻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소효문선행록>을 완성했다는 구절이 있을 정도로 충성스럽고 효도하고 우애 있는 인물이다. 조씨 가문의 빼어난 사위로 양인광이 있지만 조급하고 호기로워 일을 그르치기도 하는 반면, 경수는 효성이 지극하고 성품도 훌륭하기에 최상급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균자다운 여성 조자염과 완벽한 남성 소경수가 만나 고난을 감내하고 끝까지 효성과 우애를 지켜내는 부부로 살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향유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부부의 모습을 흥미롭게 보여주었다. 악인들이 다수로 설정되고 악녀의 악행의 규모가 크고 지속적이어서 이 부부의 고난은 효과적으로 부각되었다. 또 남편이 아내를 스승 삼는다고 한 것 등 다른 부부에게서는 보기 힘든 관계를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성인군자 같은 여성, 미래를 예측하고 스스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여성, 아버지와 친밀하고 아버지에게 인정받은 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각각의 인물 형상화도 특별하지만 이들 부부의 조합으로 주동가문의 아들 서사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재미를 불어 넣었고, 파생작이 나오는 연원이나 경위도 알 수 있게 한다는 면에서 흥미롭다.

주제어] 조씨삼대록, 국문장편소설, 딸, 아들, 사위, 부부, 부녀 관계, 고난, 파생작

1. 머리말

<조씨삼대록>¹⁾은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로 <현몽쌍룡기>²⁾의 후편이

1) <조씨삼대록> 40권 40책, 서강대학교 소장본.

다. <현몽쌍룡기>의 두 주인공 조무, 조성 형제와 그 지손들의 이야기이다. 40권 40책이며 조유현, 운현, 기현, 월염, 자염 등의 혼인과 제가(齊家)에 관한 서사가 주를 이룬다. 작품론부터 삼대록계 소설로서의 특성, 연작으로서의 특성, 서술전략이나 서술 시각, 여성 인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³⁾ 최근에는 남성 인물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⁴⁾ 중심 가문을 중심으로 하여 서사를 분석하는 것에서 나아가 작품의 흥미 요소들을 분석하고 악인이나 사위 등 다소 중심에서 벗어난 부분까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조씨 가문의 자녀 중 가장 사랑받는 딸 ‘조자염’과 그의 남편 ‘소경수’에 주목하고자 한다. 두 사람은 각각의 인물됨이나 혼인 전 상황 등도 특별하지만 혼인 후에도 갖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의연하게 극복해나가는 선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특히 자염은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군자다운 여성’이지만 혼인 후에 모진 고난을 감내하는 아내로, 경수는 ‘효성스러운 아들’이면서 빼어난 사위이기에 파생작들이 지어질 만큼 관심을 받았던 인물이다.

조자염은 <조씨삼대록>에서 가장 추앙받는 인물인 초공 조성의 딸로, 지혜롭고 덕스러워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딸이다. 그래서 선하지만 꺾박받

2) <현몽쌍룡기> 18권 18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3) 조용호, 「삼대록 소설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1995;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연구』, 태학사, 1995; 김문화, 「〈조씨삼대록〉의 서술전략과 의미」, 『고소설연구』 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허순우, 「〈현몽쌍룡기〉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2009; 정선희, 「〈조씨삼대록〉의 악녀 형상의 특징과 서술 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정선희, 「〈조씨삼대록〉의 보조인물의 양상과 서사적 효과」, 『국어국문학』 158, 국어국문학회, 2011.

4) 송혜란, 「〈조씨삼대록〉 음모 화소에 나타난 서술적 특징」, 『한국고전연구』 47,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정선희, 「〈조씨삼대록〉에서 질투하는 남성 악인 ‘설강’ 연구」, 『한국고전연구』 49, 한국고전연구학회, 2020; 정선희, 「〈조씨삼대록〉의 ‘양인광’ 서사의 특징과 의미 - 사위 형상화, 파생작 창작과 관련하여」, 『이화어문논집』 57, 이화어문학회, 2022.

는 아내로⁵⁾,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딸로 부분적으로 언급되었다.⁶⁾ 소경수가 몰래 엿보아 혼인하게 되어 온갖 고난을 당하는 착한 여성, 본받을 만한 여성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다방면의 능력이 뛰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아버지와 딸의 긴밀하고도 애정 어린 관계도 보여주고 있어 특별하다. <조씨삼대록>에서 주목할 만한 여성 인물로 조월염도 있는데, 그녀는 초공의 형인 진왕 조무의 딸이자 양인광의 아내이다. 자염처럼 예쁘고 지혜로운 인물이며 혼사장애를 겪고 혼인한다는 면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남편 인광의 인물형이 소경수와는 반대로 호걸형이며, 혼인 후 고난이 적국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 그 적국들이 작품 전체에서 가장 극악할 정도로 끈질기게 악행을 저지른다는 점이 다르다. 자염은 남편의 양모(養母)가 시어머니이고 그녀와 시동생이 중심에 서서 적국과 더불어 고난을 주기에 효성스럽고 우애로운 남편과 함께 묵묵히 참을 수밖에 없다. 성인군자형 남편이기에 시집살이가 더욱 힘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조월염과 조자염의 형상화, 두 딸의 부부형상화에 대해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듯하다.⁷⁾

소경수는 파생작들이 있을 정도로 주목받은 인물이다. 진국공, 효문공 등으로 불렸고, 부모님을 효도로 모시고 형제가 우애 있게 지냈는데 이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효문공의 본전이라는 곳에 있어 <조씨삼대록>에는 모두 기록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효문공의 충성스러움과 효도하고 우애 있던 행적은 조씨 집안의 이야기와 함께 <조씨삼대록>에 있고, ‘조자염과 경수 사이의 4자 2녀의 빼어남과 경수의 수많은 어진 행적에 대한

5) 정선희(2009), 앞의 논문.

6) 정선희, 「17·18세기 국문장편소설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연구」, 『한국고전연구』 2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7) 조월염에 대해서는 이미 다룬 바 있으므로(정선희(2022), 앞의 논문.) 본고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좋을 듯하다.

자세한 이야기는 없어 안타깝게 여겨 <소효문선행록>을 완성했다'고 한다. 또 아들 소창문 등이 옥노와 금전을 납빙하여 혼인을 이룬 일에 대해서는 <옥노금전빙>이라고 하여 세상에 전하며, <소효문충효록>과 동시에 지었다고 한다.⁸⁾ 이러한 언급은 국문장편소설에서 과생작이나 후편이 지어지는 의도와 과정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씨삼대록>의 뛰어난 딸 조자염과 효성스러운 아들 소경수 부부의 형상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각 인물의 특징과 더불어 부부 관계에 얽힌 특징과 의미, 서사적 효과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려 한다.

2. 조자염 - 굳자다운 딸이자 고난을 감내하는 아내

조자염은 초공 조성의 장녀이며 첫째 부인 양정렬의 소생인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덕스러운 성품과 지혜로운 자질이 '여자 중의 군자'여서 훌륭한 여인의 품모를 지녔다고 소개된다.

덕스러운 성품과 지혜로운 자질이 여자 중의 군자로 훌륭한 여인의 품모를

8) 진국공 소경수가 평생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자녀를 혼인 시켰으며 부모님을 효로써 모시고 형제가 더욱 우애 있게 지냈는데, 이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효문공의 본전에 있으므로, 조씨 집안의 일만도 많아 번거롭기 때문에 이곳에 모두 기록하지는 못했다. 소성렬(소월아)에 대한 기록과 소효문의 충신다음과 효도하고 우애 있게 지낸 행적은 조씨 집안의 이야기에 있지만, 조자염과 소경수 사이에서 태어난 4자 2녀의 빼어남과 진공 소경수의 수많은 어진 행적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가 없으므로 『조씨삼대록』을 보는 사람마다 안타깝게 여겼다. 그래서 드디어 『소효문선행록』을 완성했으며, 소창문 등이 옥노와 금전을 납빙(納聘)하여 혼인을 이룬 일에 대해서는 『옥노금전빙』이라고 하여 세상에 전하니, 『소효문충효록』과 동시에 지은 것이다. <조씨삼대록> 36권 17~18쪽. 현대역은 다음의 책으로 하되 문맥상 약간의 수정을 하기로 한다. 김문화·조용호·정선희·전진아·허순우·장시광 역주, 『조씨삼대록』 1~5권, 소명출판, 2010.

지냈다. 그 사람됨이 하늘과 같고 그 뜻이 신령스러워 태임(太妊)과 태사(太姒)의 덕을 갖추었으니 초공이 아니면 뭇 만한 사람이 없었고, 훌륭한 덕성이 나타나니 초공의 덕화(德化)가 아니면 있을 수 없을 정도였다. 단지 얼굴이 곱다고만 할 수준이 아니라 광채가 멀리서 보면 은근하고 가까이서 보면 향취가 어리어 천지의 정기를 안아 달과 같고 해를 희롱하는 듯하였다. 그 어머니 양정렬과 함께 앉으면 누가 더 나은지를 분간하기 어려웠고 오히려 자염이 더 나왔다. 두 눈의 맑은 광채는 눈을 길게 뜨면 맑은 기운이 사람에게 쏘이는데 그 광채가 초공의 눈과 비슷했다. 부녀의 성품이 서로 짝할 만하여 자염의 타고난 정숙하고 요조한 기질이 초공의 자녀와 진왕의 자손 중 으뜸이었다.⁹⁾

작품 내에서 가장 완벽한 여성으로 묘사되는 어머니 양정렬보다 더 낮다고 서술되는가 하면, 아버지의 눈빛이나 성품과 짝할 만하며 조씨 가문 자손 전체에서 으뜸이라고 평가된다. 초공은 이 아이가 딸이라 마음 아프다면서 남자였으면 공자와 맹자 이후에 처음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을 거라 한다. 단엄한 성품이지만 그녀를 보면 온 얼굴에 미소를 띠며, 자염도 아버지를 잘 따르며 밝은 가르침을 배운다. 천문(天文)을 보고 깨우치기도 하는 등 초공이 특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집안사람 중 제일이었다.¹⁰⁾

자염이 13세가 되니 청혼하는 집안이 많았으나, 초공은 장원급제한 애제자 소경수를 사위로 삼을까 한다. 경수가 구씨 가문과 혼인한다는 것을 듣고 안타까워하던 중 자염을 처소로 불렀는데 마침 집에 놀러온 경수가 그녀를 보게 되고, 그 아름다운 모습에 반한다. 다음은 그가 본 첫 모습이다.

한 명의 선녀가 단장한 것이 찬란하지 않은데도 광채가 현란하여 산머리의 맑은 달 같고 가을 하늘의 흰 달 같아 온 방을 밝게 비추니 만 가지 태도와 천

9) <조씨삼대록> 21권 62~63쪽.

10) <조씨삼대록> 21권 63쪽.

가지 아리따움이 고금에 제일이었다.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벽을 향해 서 있는 거동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워 직녀가 오작교에 온 것이 아니면 서왕모(西王母)가 요지(瑤池)에 조회하러 온 듯하였다. 가는 허리에 촉나라 비단이 감겨 있고 신장과 팔다리의 장단이 맞아 천만 년의 역사를 논하여도 장강(莊姜)이나 반비(班妃)의 색(色)과 덕(德)을 압도하고 임사(姪姒)의 예의를 모두 갖추어 공자와 맹자가 다시 세상에 난 듯하였다.¹¹⁾

경수는 눈이 시리고 정신이 취하여 물러 나와서는 모든 생각이 그녀에게 가고 그녀를 아내로 맞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구씨와 혼인하는 날이 되어도 마음은 오로지 자염에게 가 있어 아플 정도이다. 급기야 혼인날도 미룰 정도로 위중해져 친모인 주부인에게 사실을 말하여 친아버지 평진후가 초공에게 혼인을 허락받으러 간다. 구씨와 먼저 정혼했으니 조자염을 둘째 부인으로 얻을 수밖에 없는데 초공이 딸을 그렇게 혼인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걱정이 커진 것이다. 하지만 초공은 그 혼인을 허락하기는 한다. 그러나 딸의 뛰어난 용모와 바른 지혜와 덕이 너무 지나친 것을 걱정하면서 탄식한다.

“세상에서는 약간의 뜻과 운치, 재주가 있는 여자도 훌륭한 여자라고 칭하는데, 제 딸은 너무 뛰어나고 특별한 용모와 밝고 바른 지혜와 덕이 있어 여자 중에서는 비슷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예쁜 것이 너무 지나치고 그 덕이 너무 깊은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魔)가 끼었으니 어찌 다른 가문을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이미 경수를 사위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번 과거에서 장원급제한 것을 꺼리고 있던 중에 이런 일이 있는 걸 보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어찌 재실 되는 것을 꺼리겠습니까? 먼저 빙물을 받은 여자를 재실로 삼겠습니까? 그것은 더욱 불가한 일이니 제 딸이 재실 되는 것이 조금 낫습니다.”¹²⁾

11) <조씨삼대록> 21권 76쪽.

뛰어난 딸을 재실(再室)로 보내는 것이 마땅치 않지만 상황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면서 결단을 내린 것이다. 자염은 혼인한 뒤로 효도로 시부모님을 봉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며 동서들과 화목하고 사람을 대할 때에 지극한 예를 다하고 검소하고 절약하였으나, 시어머니 구씨와 시누이 셋은 그녀를 마땅하지 않게 여긴다. 시아버지 강능후는 자염을 아꼈지만 성품이 어리석었고, 며느리 구씨의 간사한 농간을 알아채기는 했지만 강단이 없어서 경수 부부를 염려만 할 뿐이었다.

혼인한 뒤 경수가 자염만을 좋아하고 구씨와는 정이 소원하여 드물게 찾아가니 자염은 그러지 말라고 하지만 경수는 자염 곁을 떠날 줄 모른다. 자염이 효도로 시부모님을 봉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며 동서들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예의를 다하니 우러러볼 만하였으나, 시어머니 구부인과 시누이 셋은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심하게 모해한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때려서 피를 흘리게 하고 심하게 육체 노동도 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염은 유배 가서도 시어머니를 두둔하고 돌아올 때에는 남편의 아내로 위소저를 데려와 넷째 부인으로 추천하기까지 한다. 자신의 시련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참는 것이다. 이 작품의 또다른 여성 남씨도 운현의 아내로 악녀에게 심하게 고난을 당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지략도 지녀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반면, 자염은 당대인들에게 찬양받을 만한 여성으로 ‘만들어낸 형상’이라고 느껴진다.

자염의 고난은 그녀를 괴롭히는 적국 이씨의 극악함 때문에 더 크게 부각되는데, 이씨는 바로 양인광의 아내였던 꼭씨이다. 양부에서 쫓겨난 뒤에 이름을 바꿔서 작품에 다시 등장하는 특이한 존재이다. 조월염을 모해하여 벌을 받은 뒤, 한동안 서사에서 사라졌다가 숙모 이부인의 양녀가 되어 이씨로 개명하여 다시 등장한다. 이번에는 소경수를 사모하여 이부인을

12) <조씨삼대록> 21권 98~99쪽.

줄라 사혼을 받아낸다. 경수의 셋째 부인이 되어 조자염을 질투하고 온갖 모해를 벌이는 악행을 이어간다.¹³⁾ 이씨는 시어머니 구부인과 시누이, 시동생 연수, 적국 구씨 등과 함께 자염을 모해하는데, 끝내 죽이려고까지 한다. 장사로 유배 가는 자염을 죽이도록 자객을 사지만 자염의 오빠 유현이 자객들을 사로잡아 불발하게 되고, 자염은 이 상황을 미리 알아차리고 죽었다고 가장하여 숨어 지낸다. 자신의 예지력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기지를 보인 것이다.

경수도 모해로 인해 조주로 유배가고 그 틈에 이씨는 정한림과 혼인하여 정체가 들통나 벌을 받는다. 경수의 동생 연수도 모해에 가담했다가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받게 되지만, 유배지에서 돌아온 경수가 동생을 살려달라는 긴 상소문을 올려 귀양만 가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구부인은 경수의 효심에 감동하여 회개하고 경수의 아들들도 무사히 귀가한다.

3. 소경수 - 완벽한 아들이자 효성스럽고 우애로운 남편

소경수는 초공의 제자로 소개된다. 14세에 장원급제하여 황제의 총애가 크고 한림학사로 제수된다. 조씨 가문에서도 자기 자손인 것처럼 기뻐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이다.

소경수는 평진후 승상 소천의 막내아들이었다. 그는 소공의 여러 아들 중에서 특별하여 세상에 매우 뛰어난니 보기 드문 문장과 공자와 맹자의 도덕으로 긴 강과 큰 바다와 같이 시원스런 문장을 썼다. 성품이 중후하고 위엄 있으며 몸을 수행하고 잘 다스리는 것이 빼어나니 평진후가 만금 같은 아이로 여겼다.¹⁴⁾

13) 정선희(2009), 앞의 논문.

이렇게 빼어난 자질의 아들이지만 동생 소학사에게 아들이 없자 5세에 그 집으로 양자로 보내게 된다. 아버지의 우애로 숙부의 아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숙모인 구부인이 착하지 않아 그의 인생은 힘들게 된다. 경수를 계후로 삼은 지 3년이 되자 구부인이 아들 연수를 낳는데, 평진후가 연수를 계후로 삼으라 해도 소학사는 그대로 경수를 장자로 두고 연수를 둘째로 삼는다. 이후, 구부인과 연수의 질투와 모해로 경수와 그의 착한 아내의 커다란 고난을 겪게 된다. 연수는 시를 매우 잘 짓는 재주를 타고 났지만 아버지가 자신보다 경수의 재주를 아끼는 것을 분하고 원통하게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한다.¹⁵⁾

경수는 현명한 사람이기에 이런 상황을 느끼고 아버지께 연수를 계후로 삼으라고 권한다. 하지만 소학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경수를 더욱 총애한다. 경수는 더욱 동생을 사랑하고 효성도 지극히 하여 양어머니 만드는 일을 정성스럽게 한다. 구부인도 겉으로는 친모자의 의리를 다하여 조금도 좋아하지 않는 빛을 보이지 않았기에 소학사는 그 나쁜 마음을 알아채지 못한다.

그런데 혼인에 있어서는 정도(正道)를 건지 않는다. 스승인 초공을 만나러 조씨 집안에 갔다가 자염을 본 뒤 상사병이 나서 앓아눕는 바람에 미리 정혼한 구씨와의 혼인을 뒤로 미루고 자염과의 혼인 허락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행실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기에 여전히 공손하며 현명하게 처신하려 한다.¹⁶⁾ 친부와 양부, 스승까지 모두 그의 인품과 재능을 인정

14) <조씨삼대록> 21권 66쪽.

15) <조씨삼대록> 21권 19~20쪽.

16) 경수가 옳드려 죄를 청하는데 옥 같은 얼굴이 붉어져 봉황 같은 눈을 낮게 뜨고 머리를 숙여 사죄하며 말하였다. “불초한 저의 행실이 독실하고 공경스럽지 못하여 남의 규수와 마주쳐 보고 마음의 병을 앓았으니 매우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병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여 아버지 앞에서 지은 죄가 산과 같아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 같은 은혜로 사부께 청하시어 혼인이 되게 하셨으니, 제가

했기에 허락을 받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빙물을 구씨가 먼저 받았다는 이유로 자염은 두 번째 부인이 된다.

경수는 과거에서도 1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들썩일 만한 명망 있는 재상이 될 재목’이고 문무를 겸비하여 충효를 완전하게 할 복록이 제후에 오를 관상이며 다른 사위들보다 뛰어나 유현과 대적할 만하다¹⁷⁾고 평가된다. 자염과의 혼인 날 그를 본 가족들이 모두 감탄하고 기뻐할 정도로 외모도 너무나 빼어나 미녀들보다 나으며 눈빛이 신령스럽다고 한다.¹⁸⁾

소경수의 수려한 눈썹에 화기를 띤 것이 봄바람 같고 깨끗한 얼굴에 온화한 기운이 영롱하여 특별한 빼어남이 만고를 기울여도 여럿이 나올 수 없는 정도라고 묘사된다. 누에 같은 눈썹에 현명한 눈빛이 신령스러우며, 온화한 외모의 춘풍을 이끄는 좋은 기운이 이름답고도 높아 연지분을 바른 미녀의 예쁜 모습과 비교해도 그들이 미치기 어렵다고 할 정도라는 점에서 작중 남성 인물 중 최상위에 속하는 용모라고 할 수 있다.

경수가 이처럼 모든 면에서 훌륭했지만, 아내 자염을 시기하는 누이들과 양어머니 때문에 늘 난처하고 괴롭고 울울하게 지내게 된다. 큰 아랑으로 견디고 집안 다스리기를 신중하게 하였지만 그녀들의 악행 때문에 집안이 어지럽게 되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충효를 모두 갖추었고 임금님도 잘 모셨기에 명성이 자자했으며 벼슬도 순조롭게 올라 금세 예부상서 태학사에 오르기도 한다.¹⁹⁾

아내 자염이 생각하는 남편의 모습도 ‘효자로서의 경수’이다. 자염이 모

무슨 면목으로 사부를 뵈겠습니까? 만약 혼인을 한다면 구태여 조씨를 둘째 부인이라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둘을 함께 취하여 덕행이 더 나은 사람을 첫째 부인으로 삼겠습니다. 어찌 굳이 조씨를 둘째로 아주 정해놓겠습니까?” <조씨삼대록> 21권 101~102쪽.

17) <조씨삼대록> 21권 106~107쪽.

18) <조씨삼대록> 21권 108쪽.

19) <조씨삼대록> 23권 83~84쪽.

해에서 벗어나 집으로 귀가했을 때에도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남편에게 자염은, “저 때문에 군자의 효성스러운 뜻이 상하게 될까 하는 것이 염려스러우니 군자는 저를 마음에 걸려하지 마시고 진중하십시오.”²⁰⁾라고 하면서 경수의 큰 효심이 드러나지 못하고 도리어 더러운 이름을 면하지 못할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부모님의 뜻을 받들고 따라 효성스러운 뜻을 온전히 하라, 효성과 우애에 먼저 힘쓰기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부부를 돌아보라고 권한다. 이러한 태도는 자염의 후덕한 면모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경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수는 어머니 구부인이 자신을 꺾박하고 자염을 옥해도 시종일관 온화한 기운을 변치 않으면서 오히려 죄를 청하니 구부인이 더 이상 꾸짖을 말이 없을 정도로 응한다. 자염도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 겨우 상황이 마무리되고, 경수는 이후로 조씨의 침소에 자주 가지 않고 밤낮으로 성현의 경전에 마음을 기울여 행실을 수련하고 효성을 다한다. ‘대효(大孝)’를 상할까 두려워하여 그리한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능력과 외모, 성품 모두 완벽에 가까운 경수의 말년은 어떠한가? 진국공 황태부의 작위를 겸하고 있었고 고결한 덕행에 대한 칭찬과 명망이 세상에 가득하며 황제의 총애가 융성하다.²¹⁾ 조씨, 위씨 두 부인이 아황(蛾皇)과 여영(女英)의 풍모가 있어서 집안이 화목했으며 집안의 법도가 정숙했고, 슬하에 자식이 많았는데 조씨가 4자 2녀를, 위씨가 1자 2녀를, 구씨가 1자를 낳으니 7자 3녀가 모두 뛰어났다. 집안의 영화와 복 그리고 화려함은 비길 사람이 없었으며 두 부모님이 건강하셔서 흠잡을 일이 없었다. 다만 구씨가 출산 후에 몸에 병이 들어 서른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버리니 모두 슬퍼했으며, 경수의 아우 연수가 축 땅으로 유배 간 뒤 10년이 지났지

20) <조씨삼대록> 27권 38쪽.

21) <조씨삼대록> 36권 2쪽.

만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상황이다.²²⁾

그래서 경수는 조카를 위로하면서 아버지가 돌아오시게 할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 때마침 경수의 친구 유현이 황제께 연수를 사면해 달라고 하여 연수는 돌아오게 되고 다같이 화목하게 살게 된다.

4. 인물 형상화의 의미와 서사적 효과

자염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공자와 맹자가 아니라면 그 높은 덕을 비할 데가 없고 증거가 아니면 그 높은 효행을 당할 사람이 없을 듯하다’²³⁾라고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시가에서 갖은 수난을 당한다. 이렇게 선한 여성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는 국문장편소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화소이다. 그런데 자염은 착하기만 한 여성이 아니라는 데에 특별함이 있다.

경수가 자염을 바라보면 그녀가 옷깃을 바로잡고 단정히 앉아 있는 모습에서 밝은 광채가 암실에 비치는 듯 나와, 눈이 시리고 마음이 취하여 물러나 앉게 된다²⁴⁾고 하였다. 두 사람의 온갖 광채가 방에 비쳐 막상막하하리서 하늘에서 내려온 한 쌍의 부부라고 칭탄하는 서술이 자주 등장한다. 경수가 다른 아내를 비난하면 그녀의 허물을 듣고 싶지 않다면서 그녀를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니, 경수는 도리어 감탄하고 감동하고 만다.

“산이 높으면 옥이 나고 바다가 깊으면 진주가 난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의 지극히 공평하고 사스럽지 않으신 덕성의 조화와 장모님의 정숙하고 자애로운 풍모가 흘러내려 조생들의 비범함이 있고, 부인의 현명하고 정숙한 덕성과 단정하고 묵직한 풍모가 있는 듯합니다. 그대는 완전히 장인을 닮았으니 나의 높은

22) <조씨삼대록> 36권 3~4쪽.

23) <조씨삼대록> 22권 1쪽.

24) <조씨삼대록> 22권 19쪽.

스승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장인어른을 사부로 섬기고 규방으로 들어오면 부인을 스승으로 삼으면 선비의 행실을 잃지 않을 듯합니다. 부인은 총명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하니 끝까지 어머니를 근심하여 받들고 동기들과 화목하며 나를 사람으로서의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십시오”

조씨의 영리한 기질로 어찌 집안의 형세와 시어머니, 시누이 등의 기색을 모르겠는가? 오늘 소사인이 말씀을 은은하게 하며 효성과 우애를 당부하는 이유를 알아들었다. 다시 부드러운 표정으로 사례하며 명을 들을 따름이었고 자기 신상의 화를 염려하지 않았다. 다만 소사인의 어짊과 효성을 상할까 슬퍼하며 즐거워하지 않을 뿐이었다.²⁵⁾

남편이 아내를 ‘나의 높은 스승’이라고 하면서 부인을 스승으로 삼으면 선비의 행실을 잃지 않을 듯하다고 하는 것은 최상의 칭찬이면서 다른 부에게서는 보기 힘든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자염은 또 자신이 모해 당하고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것도 운명이고 생사가 하늘에 달려 있으니 시누이를 원망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늘 마음을 바로 하여 후세 사람들이 자신의 무죄함을 알도록 하겠다고 할 뿐이다. 다만 부모님이 슬퍼하실 것을 걱정하며 비밀로 하려 한다. 총명한 지혜로 장래를 다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간혹 하는 말이 말마다 현명한 논의이다.²⁶⁾ 죽음의 위기에서는 예지력을 발휘하여 스스로 벗어나기도 했다.

그녀는 우아하고 찬란하며 해와 별 같이 빛이 날 뿐 아니라 착한 마음과 어진 덕이 외모에 드러나고, 가슴의 무궁한 덕이 ‘성자(聖者)와 흡사’하여 당대의 숙녀요 ‘여자 중의 요순임금’이라고 평가된다. ‘태산이 높고 높으며 큰 바다가 넓고 넓어서 그 끝을 엿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도 서술되며, 안전하고 예의 바른 모습과 빛나는 절차가 좌중의 여자들과 섞이지 않아서

25) <조씨삼대록> 22권 102~104쪽.

26) <조씨삼대록> 23권 6~7쪽.

한 명의 ‘신선이 속세에 내려온 듯’하다고 되어 있다.²⁷⁾

이렇게 군자답고 임금답다고까지 언급되는 여성은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 정도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진양공주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밀접한 것에 비해, 자염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점이 다르다. 진양공주는 결혼을 해서도 친정인 궁중 일에 관여를 하며 궁중에 들어가 몇 년을 살기도 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그 슬픔에 못 이겨 자신도 식음을 전폐하다가 죽는다.²⁸⁾ <소현성록>의 소월영이나 석부인도 작품 속에서 가장 돋보이는 여성이지만 ‘군자’라든지 ‘임금’, 성인’ 같다는 수식어는 붙지 않으며, 부녀 관계가 의미 있게 나오지 않는다.

유독, 조자염은 아버지 초공과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면에서 다른 여성 인물들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아버지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딸이다.²⁹⁾ 평소 소에 선불리 칭찬하거나 마음을 내보이지 않는 성품인 아버지 초공은 유독 자염에게는 칭찬과 사랑을 아끼지 않고 표현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녀에게만 주역까지 가르쳤던 것에서 느껴지지만, 그녀가 혼인한 뒤에도 늘 안타까워하면서 걱정을 한다.³⁰⁾ 모해를 당해 장사 지방으로 유배를 가

27) <조씨삼대록> 26권 108~110쪽.

28) 진양공주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여성이 어머니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는데도 당시에는 출가녀에게 흔하지 않은 일이었기에 공주는 특별해 보인다.

29) 조선후기에 지어진 제문들을 보면, 아버지가 일찍 죽은 딸의 생일에 쓴 제문이나 묘를 이장하고 쓴 제문들에서 딸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김수항, 남구만, 송준길, 김창철 등이 쓴 딸의 제문에서 딸의 성품과 능력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다. 정형지 외 역주,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 보고사, 2006.

30) 평소 말 없던 초공도 자염에게 이르러서는 자연히 흠애하여 손을 잡고 혼연히 위로하여 말하였다. “내 아이 한 번 문을 나매 친정을 찾지 않더구나. 부모와 자식의 정이 뜨거우나 여자가 시집을 가면 부모 형제를 멀리하는 것이니 나도 너를 찾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만나니 아이가 바뀌어 어른이 되고 모습이 더욱 뛰어나구나. 그러나 여자의 예쁜 모습이 예로부터 기쁜 것은 아니라서 후시 젊은 나이에 해를 면치 못할까 싶구나.” <조씨삼대록> 26권 110~111쪽.

는 자염과 경수 부부의 상황을 전해 들은 뒤에도 너무나 슬퍼한다.³¹⁾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에 자염이 옳은 소리를 하니 웃으며 말하기를, “딸아이의 말이 옳다. 너희 여럿이 자염이 한 명의 지식에 못 미치니 어찌 애달프지 않겠느냐?”³²⁾라고 하기도 한다. 양 부인이 죽자 자염이 모친을 여윈 슬픔에 잘 먹지를 않고 기력이 쇠약해지자 과도하게 슬퍼하여 몸을 훼손하지 말라고 타이른다.³³⁾ <소현성록>에서 소현성의 딸들 중 수빙과 수주가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 여성으로 형상화되어 있고 시대 식구들이나 다른 아내에게 토틈 받는다는 면에서 비슷하지만, 아버지의 인정이나 친밀함은 언급되지 않는다.

<조씨삼대록>의 또 한 명의 빼어난 딸 조월염도 지혜롭고 덕 있는 여성이지만 그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아들에 비해 비길 바가 아닐 만큼 사랑하는 딸’³⁴⁾이라고 언급은 되어 있지만 자주 표출되지는 않는다. 이는 아버지의 성품과도 관련이 있는데 자염의 아버지 초공은 군자다운 남성형이고 월염의 아버지 진왕은 호걸형 남성형이기 때문에 정반대이다. 초공은 자상하고 예지력 있어서 딸에 대해 애정과 신뢰를 담은 표현을 자주 한다. 이렇게 쌍을 이루는 인물형을 보는 것은 <조씨삼대록>의 재미 중 하나이다.

자염의 남편 경수가 작품 속 사위들 중 최고로 평가되는 인물이라는 면에서 자염이 딸 중 최애인 점과 아울러, 이들은 최고의 부부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경수는 실력과 외모가 완벽한 남성이면서 효성스럽고 우애로운 남성이기에 조씨 가문 사위들 중 제일 낫다고 평가되었다. 실력과 외모에 있어서는 진왕의 사위인 양인광과 비슷하게 최고라 하지만, 효성이나

31) <조씨삼대록> 31권 6쪽.

32) <조씨삼대록> 31권 33~34쪽.

33) <조씨삼대록> 39권 99~100쪽.

34) <조씨삼대록> 4권 36~37쪽.

성품의 면에서는 단연 경수가 앞선다. 인광은 조급한 성품과 호기로운 때문에 일을 그르치기도 하지만, 경수는 악한 양모와 배다른 동생들, 아내들의 모해에도 화내는 법 없이 끊임없이 참으면서 이겨내고 용서하는 자애로움을 보여서 귀감이 되는 인물이었다. 효문공으로 불리면서 효도와 우애에 대한 이야기들이 따로 전해지고 행적의 약간이 이 작품에 있기는 하지만, 그의 수많은 행적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이 없어 <소효문선행록>까지 지어졌다고 한다.³⁵⁾ 이런 상황은 국문장편소설에서 파생작이 만들어지는 의도와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현몽쌍룡기>의 후편인 <조씨삼대록>의 주동가문인 조씨의 딸 조자염과 그녀의 남편 소경수 부부 형상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자염은 모든 면에서 뛰어난 군자다운 여성으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과 인정을 받은 딸이다. 경수도 능력과 성품, 외모 등을 두루 갖춘 완벽한 남성으로, 효성스럽고 우애로운 인물이다.

조자염은 초공 조성의 장녀이며 양 부인의 소생인데, 얼굴의 광채와 정기가 어머니보다도 뛰어나고 성품이 아버지와 짝할 만하여 정숙하고 요조한 기질이 초공과 진왕의 자손들 중 으뜸이라고 평가되었다. 그런 그녀를 엿보게 된 경수가 반하여 우여곡절 끝에 혼인을 하는데, 경수의 양모인 구부인과 다른 아내 구씨와 이씨, 여동생들의 모해로 자염은 심한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착하고 훌륭한 여성이 모해를 당하는 경우는 국문장편소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양상이지만, 자염의 경우 시어머니, 시누이들, 시동생, 다른 아내까지 합심하여 심하게 핍박하고 악녀 이씨는 외부인들까지

35) <조씨삼대록> 36권 17~18쪽.

끌어들여 규모가 크게 악행을 저지른다는 면에서 그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참아내는 점, 남편의 효성과 우애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극복하려고 하는 점, 그러나 결정적으로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에는 자신이 미리 알아차리고 지혜를 발휘하여 벗어난 점 등에서도 다르다.

소경수도 14세에 장원급제할 만큼 뛰어나지만 숙부의 양아들로 들어가 계후가 되고 숙모 구부인이 아들 연수를 낳자 질투와 모해를 받는다. 자염을 보고 상사병이 나고 구여곡절 끝에 자염을 둘째 부인으로 맞지만 행복할 수 없었다. 양모가 아내를 박대해도 대들지 못했고 다른 부인들이 자염을 모해해도 어찌할 수 없었으며 동생 연수가 자신을 모해해도 참아내려 하였다. 효성과 우애를 실천하는 인물인 것이다. 아내와 함께 어머니의 구박을 참아내고, 동생을 위해 긴 상소문을 쓰며 적극적으로 나서서, 끝내는 어머니와 동생을 계도하여 행복한 결말을 맺었다.

자염처럼 모든 면에서 뛰어나면서도 ‘거룩한 사람’, ‘요순임금 같은 사람’ 등의 칭찬을 받는 여성은 흔하지 않다.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 정도가 있을 뿐이다. 특히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경우라는 점에서 자염은 차별된다. <소현성록>의 소월영, 석부인 등이 이렇게 훌륭한 여성, 이상적인 여성으로 형상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머니와의 친밀도가 강조되거나 시어머니와의 관계 위주로 되어 있다.³⁶⁾ 조자염과 초공의 부녀관계는 아직 아들 중심의 가치관이 확고해지기 전인 17세기의 작품 <소현성록>에서도 보이지 않는 양상이어서 이해적인데, 이는 초공의 완벽한 인간상 중의 하나로 설정되었을 수도 있고 당대 여성들의 희망이 들어간 아버지상으로 설정되었을 수도 있다.

36) 또 딸은 어머니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이어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악한 성품을 악한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다고 하면서 아버지는 책임에서 벗어난 면이 있다. 정선희(2010), 앞의 논문.

한편, 경수는 작품 속 사위들 중 최고라고 평가되는 인물이며 그의 수많은 어진 행적이 묻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소효문선행록>을 완성했다는 구절이 있을 정도로 충성스럽고 효도하고 우애 있는 사람이었다. 조씨가문의 빼어난 사위로는 양인광이 있지만 조급하고 호기로워 일을 그르치기도 하는 반면, 경수는 효성이 지극하고 성품도 훌륭하기에 최상의 인물이라 할 수 있었다. <소현성록>의 경우 사위들이 처가에서 인정받는가, 무시 받는가, 사위가 처가를 무시하는가, 동렬들이 무시하는가 등에 따라 다양한 관계 양상이 펼쳐지면서 위상이 달랐는데, <조씨삼대록>의 경우에는 사위가 처가를 무시하거나 처가에서 무시 받는 경우, 동렬들이 무시하는 경우 등은 나오지 않았다. 일곱여 명의 사위들이 형상화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 양인광, 소경수가 가장 도드라지는 인물이었었는데, 인광은 호걸형으로, 경수는 성인군자형으로 설정되어 서로 다른 부부관계와 서사를 보여주어 작품에 활력을 부여하였다.³⁷⁾

이렇게 군자다운 여성 조자염과 완벽한 남성 조경수가 만나 고난을 감내하고 끝까지 효성과 우애를 지켜내는 부부로 살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향유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남편이 아내를 ‘나의 높은 스승’이라고 하면서 그녀를 스승 삼는다고 한 것 등 다른 부부에게서는 보기 힘든 관계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들 부부는 각각의 인물 형상화도 특별하지만, 둘의 조합으로 주동 가문의 아들 서사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재미를 불러 넣기도 하였고, 국문장편소설의 파생작이 나오는 경위를 알 수 있게 한다는 면에서도 흥미롭다.

37) 이는 <조씨삼대록>이 아버지 대의 중심 인물인 조무와 조성을 호걸형, 군자형으로 설정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조씨삼대록>, 40권 40책, 서강대학교 소장본.
- 김문희·조용호·정선희·전진아·허순우·장시광 역주, 『조씨삼대록』 1~5권, 소명출판, 2010. 각 권 1~450쪽 내외.
- 김문희, 「<조씨삼대록>의 서술전략과 의미」, 『고소설연구』 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149~177쪽.
- 송혜란, 「<조씨삼대록> 음모 화소에 나타난 서술적 특징」, 『한국고전연구』 47,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165~192쪽.
- 정선희, 「<조씨삼대록>의 악녀 형상의 특징과 서술 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9, 389~419쪽.
- 정선희, 「17세기 후반 국문장편소설의 딸 형상화와 의미-〈소현성록〉연작을 중심으로」, 『배달말』 45, 배달말학회, 2009, 425~460쪽.
- 정선희, 「17-18세기 국문장편소설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연구」, 『한국고전연구』 2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169~200쪽.
- 정선희, 「<소현성록> 연작의 '사위' 형상화 연구」, 『한국고전연구』 57, 한국고전연구학회, 2022, 343~367쪽.
- 정선희, 「<조씨삼대록>의 '양인광' 서사의 특징과 의미 - 사위 형상화, 파생작 창작과 관련하여」, 『이화어문논집』 57, 이화어문학회, 2022, 239~260쪽.
- 정형지 외 역주,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 보고서, 2006, 1~350쪽.
- 최수현, 「현몽쌍룡기에 나타난 친정/처가의 형상화 방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5,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326~360쪽.
- 탁원정, 「국문장편소설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다양한 사위 유형과 그 의미」, 『이화어문논집』 55, 이화어문학회, 2021, 12. 5~27쪽.
-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의 '이상화'양상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8, 169~202쪽.
- 한정미, 「어리석은 장인의 사위 바라기와 고집불통 사위의 장인 밀어내기-〈완월회맹연〉의 옹서」, 『고전서사문학에 나타난 가족』, 보고서, 2017, 199~246쪽.
- 허순우, 「<현몽쌍룡기>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9, 1~196쪽.

ABSTRACT

A Study on the Portrayal of Jo Ja-yeom
and So Gyeong-su Couple in the 〈JoSsiSamDaeRok〉
-A marriage between a virtuous daughter and a filial son

Jeung, Sun-hee

This research examines the characters Jo Ja-yeom and her husband So Gyeong-su from the Korean classical novel 〈JoSsiSamDaeRok〉. Ja-yeom is portrayed as an exemplary virtuous woman, receiving special love and recognition from her father. Gyeong-su is depicted as a perfect man, endowed with abilities, temperament, and appearance, embodying filial piety and fraternal love.

By illustrating the lives of virtuous woman Jo Ja-yeom and perfect man So Gyeong-su, who endure hardships and maintain filial piety and fraternal love, the research interestingly presents the ideal couple envisioned by the elite class. The villains are numerous and the scale of the evil woman's wickedness is large and persistent, effectively highlighting the couple's hardships. The relationship also showcases rare dynamics such as a husband regarding his wife as a mentor, and portrays the significance of a woman who is a paragon of virtue, can foresee the future, extricates herself from crises, and is both close to and recognized by her father.

Key Words <JoSsiSamDaeRok>, Korean classical novel, Daughter, Son, Son-in-law, Couple, Parent-child relationship, Hardships, Derivative

논문투고일: 2024.06.29.
심사완료일: 2024.08.05.
게재확정일: 2024.08.08.

